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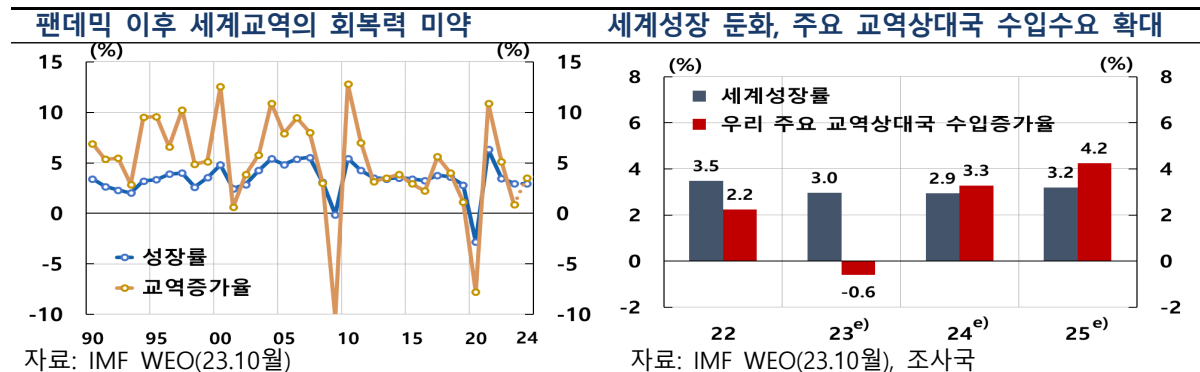
# BOK 이슈노트

2024년 1월 18일

## 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b>박세준</b>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 Tel. 02-759-4165 sj.park@bok.or.kr	<b>이재호</b>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 Tel. 02-759-4138 jaeho.lee@bok.or.kr	<b>이종웅</b>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 Tel. 02-759-4207 jw.lee@bok.or.kr	<b>이승주</b>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조사역 Tel. 02-759-4150 sj.lee@bok.or.kr	<b>박나영</b>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조사역 Tel. 02-759-4172 nyp@bok.or.kr	<b>강지현</b>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조사역 Tel. 02-759-4254 jhgkang0531@bok.or.kr
-----------------------------------------------------------------------------	-------------------------------------------------------------------------------	----------------------------------------------------------------------------	-----------------------------------------------------------------------------	--------------------------------------------------------------------------	----------------------------------------------------------------------------------

- 팬데믹 이후 세계교역은 ①글로벌 분절화 및 ②통화긴축, ③서비스중심 회복 등에 기인하여 미약한 회복흐름을 보였다.** 미·중 무역갈등 및 러·우전쟁으로 분절화가 심화된 가운데,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고물가에 대응한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교역흐름이 크게 약화되었다. 더욱이 팬데믹 충격은 대면/비대면 수요부침을 극명하게 갈라놓으며 상품·서비스 수요간 대체관계를 형성하였고, 22년 리오프닝 이후 세계경제가 주로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계교역의 회복은 기대에 못 미쳤다.
- 지난해 크게 부진하였던 세계교역은 24년 세계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과 서비스선호 충격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점차 회복되겠으며, IT경기 반등과 함께 올해 우리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분절화 지속, 중동정세 불안,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교역신장률(3.5%, IMF 전망기준)은 과거 장기 평균(07~18년중 3.8%)을 하회하는 가운데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경제는 세계교역의 회복속도가 완만한 가운데서도 IT경기 및 주요 교역상대국 수입수요\* 회복(23년 -0.6% → 24년 +3.3%)에 힘입어 수출 개선이 기대된다.  
\*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개 국가·권역(중국·미국·유로지역·베트남·일본·홍콩·대만·싱가포르·인도·호주; 23년 수출비중 78.6%)의 수입증감률(IMF 전망치)을 국가별 수출비중으로 가중평균
- 향후 수년간 세계교역은 세계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이에 다소 못 미치는 흐름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분절화 지속 등 구조적 하방요인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경제는 교역분절화 및 공급망재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혁신, 친환경 전환 등 국제무역의 새로운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서비스업의 수출경쟁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최창호 조사국장님, 이종희 거시전망부장님, 김민식 조사총괄팀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I. 검토 배경

1. 팬데믹 이후 세계교역의 회복력이 미약한 모습이다. 세계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세계성장 대비 교역증가율(교역탄성치)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하게 빠르게 반등한 뒤 점차 둔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3년간의 교역탄성치는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2023년은 세계교역이 성장에 비해 매우 부진한 해였다.<sup>1)</sup>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경제에 불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교역탄성치가 구조적으로 낮아졌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도 팬데믹을 기점으로 세계교역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 수출 환경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글로벌 성장·교역의 관계변화가 팬데믹 충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혹은 구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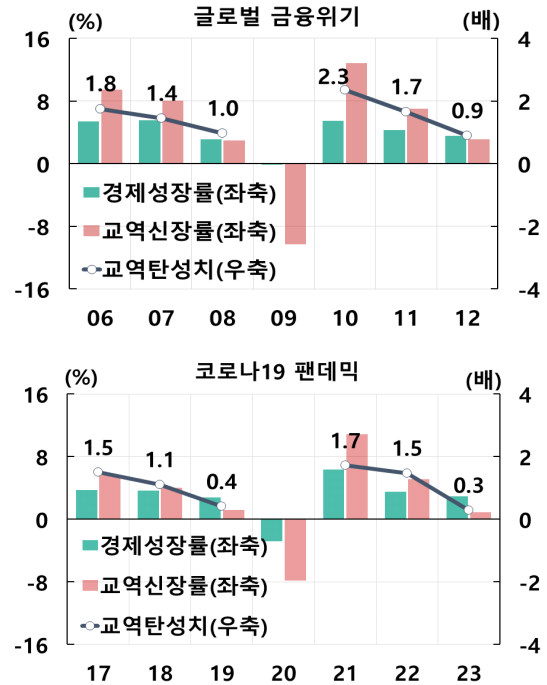
2. 본고에서는 팬데믹 이후 세계성장·교역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세계교역과 우리수출의 향방을 가늠하고자 한다. 더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혁신, 친환경 전환 등이 중·장기 교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핵심질문

- 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흐름에 비해 교역의 회복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이유는 무엇이며, 과거와 다르게 어떠한 교역의 특징이 있는가?
- 2023년중 이례적으로 부진했던 세계교역이 2024년에는 정상화될 것인가? 아울러 우리 수출전망은 어떠한가?
- 중·장기적으로 세계 교역환경은 어떻게 변화되며 이에 따른 우리경제 시사점은?

팬데믹 이후 세계교역은 금융위기와 유사하게 빠르게 반등 후 약화, 특히 23년중 크게 둔화 (위기 이후 3년간 교역탄성치 평균 : 금융위기 1.6 → 코로나19 위기 1.2)

<그림 1> 경제위기 전후 세계 교역탄성치<sup>1)</sup>



주: 1) 세계교역증가율/세계성장률, 23년은 잠정치  
 자료: IMF WEO(23.10월)

## II. 최근 글로벌 성장과 교역 흐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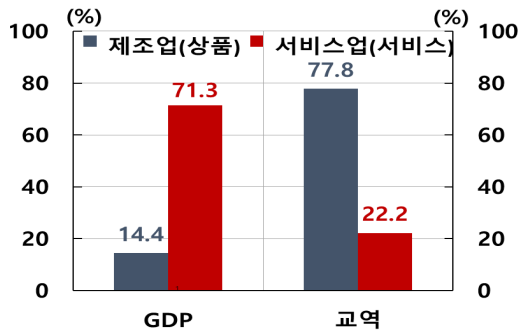
3. 일반적으로 세계성장과 교역의 경기순환은 주로 재화수요 증감에 의해 좌우된다. 그 결과 재화부문의 비중이 높은 교역의 변동성이 크며, 경제위기시 교역은 성장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가 이후 회복과정에서는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GDP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71%, 16~21년 평균)이 높은 반면, 교역은 금리에 민감하고 경기진폭이 큰 상품이 높은 비중(78%)을 차지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재화·서비스의 구성비 차이로 인해 세계 교역은 성장흐름보다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 1990~2022년중 세계 GDP와 교역증가율의 표준편차는 각각 1.7%p, 4.9%p로 나타났다.

1) 2019년 교역탄성치도 0.4 수준으로 매우 낮았는데, 이는 당시 IT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여파에 주로 기인한다.  
 2) 운송,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등 다수의 서비스활동이 상품교역에 연동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교역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실효적 비중은 통계에서 포착되는 것 이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사이클이 주로 재화수요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두 지표는 대체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글로벌 GDP내 제조업 비중 약 14%,  
반면 세계교역내 상품비중 약 78%**

<그림 2> 세계 GDP 및 교역 구성비<sup>1)</sup>



주: 1) 16-21년 평균, 명목 기준 자료: UN, WTO

**세계교역의 높은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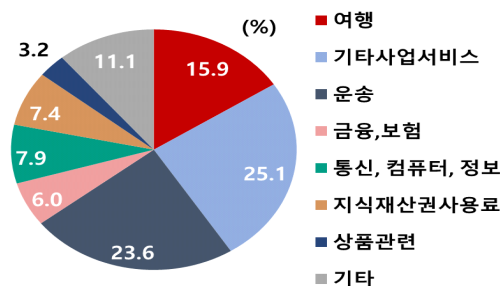
<그림 3> 세계 GDP 및 교역 증가율 표준편차<sup>1)</sup>



주: 1) 90-22년 기준 자료: IMF(23.10월)

**서비스교역중 사업서비스·운송 부문 비중이 높은 편**

<그림 4> 세계교역 서비스업<sup>1)</sup>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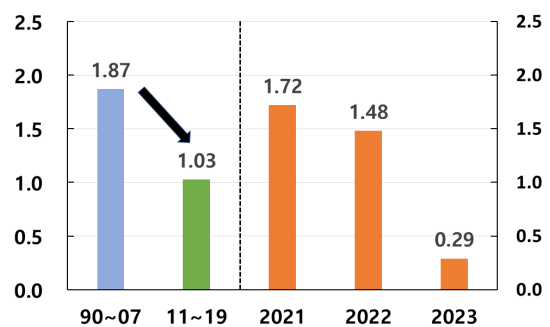


주: 1) 2022년 명목 수출입 기준 자료: WTO

4. 팬데믹 이후의 세계성장과 교역 흐름도 이러한 일반적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추세적으로 진행되어 온 교역둔화 움직임에 더해, 팬데믹 이후 나타난 세 가지 특징, 즉 ①분절화 심화, ②통화긴축, ③서비스중심 회복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교역의 회복 속도가 예년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교역흐름을 긴 시계에서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국제분업구조(Global Value Chain)의 확산에 힘입어 세계교역은 세계성장 대비 약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교역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세계 성장과 교역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1:1의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세계교역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구조적으로 둔화된 배경에는 글로벌 투자 감소, 공급망 성숙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sup>3)</sup> 이처럼 세계교역탄성치가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둔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기존 논문들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만큼, 이하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세계 교역 부진의 배경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금융위기 이후 교역탄성치 반감(1990~2007년중 1.9 → 2011~2019년중 1.0), 2023년 최저 수준 기록**

<그림 5> 세계 교역탄성치<sup>1)</sup>



주: 1) 세계교역증가율 / 세계성장률, 23년은 잠정치 자료: IMF WEO(23.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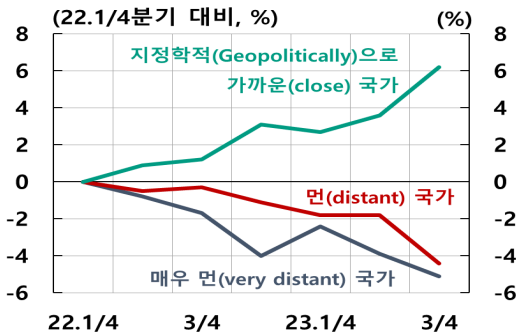
5. [① 분절화 심화]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발생한 러·우전쟁은 글로벌 분절화 움직임을 심화시키며 세계교역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팬데믹은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 보호 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특히 러·우전쟁은 미·중 중심의 분절화 움직임이 EU, 러시아 등

3)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둔화의 구조적 원인’ 참조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절화 움직임은 직접적으로 세계교역을 위축<sup>4)</sup>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움으로써 교역유발효과가 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실증적으로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sup>5)</sup>(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세계교역에 지속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 우방국 중심 교역 분절화 지속

<그림 6> 지정학적 근접성<sup>1)</sup>별 상품교역 추이



주: 1) 국가별 외교정책 유사 정도로 분류  
자료: UNCTAD

###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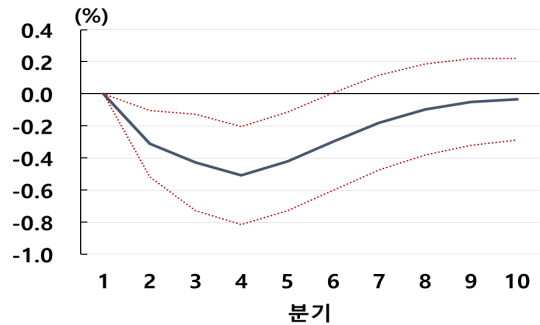
<그림 7>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자료: Baker et al. (2016)

### 글로벌 불확실성은 교역을 위축

<그림 8> EPU 충격에 따른 세계교역의 반응<sup>1)2)3)</sup>



주: 1) 한 단위 표준편차 충격에 따른 반응을 의미  
2) 추정방법은 <참고 2>를 참조  
3) 동 결과는 일시적 불확실성 충격에 따른 세계교역의 반응이며, 분절화 등으로 불확실성 충격이 항구적으로 나타날 경우 부정적 효과는 더 클 수 있음

자료: 조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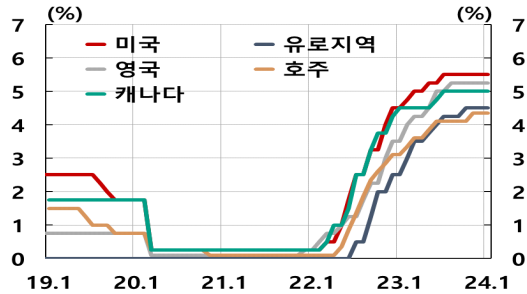
6. [② 글로벌 통화긴축] 또한 팬데믹 극복과정에서의 대규모 재정지원과 공급망 차질이 낳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통화긴축이 진행되면서 상품중심인 교역에 하방압력으로 이어졌다. 과거 경제위기시 저물가·저금리 상황이 이어진 것과 달리, 팬데믹 이후에는 이례적인 초과저축 축적과 공급차질로 인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한 글로벌 통화긴축이 뒤따랐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새롭게 나타난 국제유가와 달러화의 동조화 현상<sup>7)</sup>은 최근 글로벌 성장에 비해 제조업 생산·교역이 더욱 부진한 배경이 되었다. 미국은 셰일혁명 이후 대외 에너지의존도가 줄어들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무역수지 개선 및 달러화 강세로 연결되는 경로가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하였다(Rees, 2023).<sup>7)</sup> 이를 배경으로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은 고금리 상황과 결합하여 달러화 강세 움직임을 부추겼고 이는 원자재비용 상승, 신용여건 악화 등을 유발함으로써 글로벌 제조업 생산과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4) WTO 추정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우전쟁 이후 외교정책에 따라 구분한 가상의 두 지정학적 블록간 상품무역 흐름이 블록내 무역보다 4-6% 느리게 증가하였다(FT).  
5) Scott Baker (Northwestern대 교수) 등이 개발한 지표로 전세계 일간지별 기사 중 경제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언급된 횟수를 추려내 종합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6) 불확실성 충격이 세계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VAR모형 추정 방법 및 결과는 <참고 2> '세계교역 동인의 역사적 분해 방법 및 결과' 를 참조  
7) 국제유가와 달러화지수간 상관관계는 팬데믹 이후 높은 양의 값으로 전환하였다(18~19년중 -0.35 → 20~23년중 0.52).

## 22년 이후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

<그림 9>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최근 美 에너지 순수출국 전환

<그림 10> 미국 석유제품 순수출<sup>1)</sup>



주: 1) 명목기준 계절조정 계열  
자료: BEA

## 팬데믹 이후 국제유가와 달러화 동조화

<그림 11> 국제유가<sup>1)</sup>와 달러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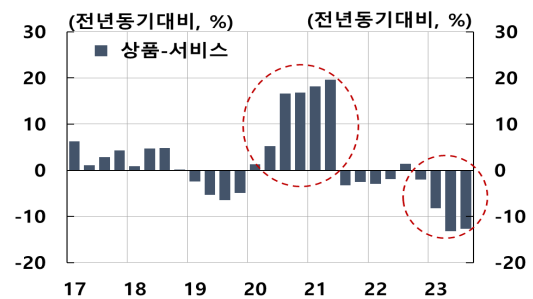
주: 1) 브렌트유 근월물 기준  
자료: Bloomberg

7. [③ 서비스중심 회복] 더욱이 팬데믹 충격은 대면/비대면 수요부침을 극명하게 갈라놓으며 상품-서비스 수요간 대체관계를 형성하였고, 22년 리오프닝 이후 세계경제가 주로 서비스부문

회복에 힘입어 성장함에 따라 교역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디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1년 중에는 락다운으로 대면서비스 지출이 위축된 가운데, 원격수업·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IT기기 수요 확대, 주요국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상품수요가 급증하였다. 반대로 2022년 이후에는 리오프닝과 본격적인 글로벌 금리인상 사이클이 겹치면서 상품수요가 줄어든 대신 그간 억눌렸던 서비스수요가 되살아나면서 글로벌 성장흐름을 주도하였다. 2023년중 특히 뚜렷했던 세계성장과 교역의 괴리는 상품과 서비스를 오갔던 수요의 쉐리프(rebalancing)으로 이해될 수 있다.

## 팬데믹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선호충격으로 작용

<그림 12> 세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증가율 차이<sup>1)</sup>



주: 1) 상품은 글로벌 집계, 서비스는 WTO에서 월별 서비스 교역을 발표하는 주요 15개국 기준  
자료: WTO

## 2023년중 서비스업황은 양호, 제조업은 부진

<그림 13>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자료: S&P Global

8. 이상의 논의는 VAR모형을 통한 실증분석(historical decomposition 결과에서도 확인된다<sup>9)</sup>). 먼저 분절화에 따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확대(그림

8) 달러화 강세가 세계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Gopinath et al.(2018), Akinci et al.(2022), Bruno and Shin(2023) 등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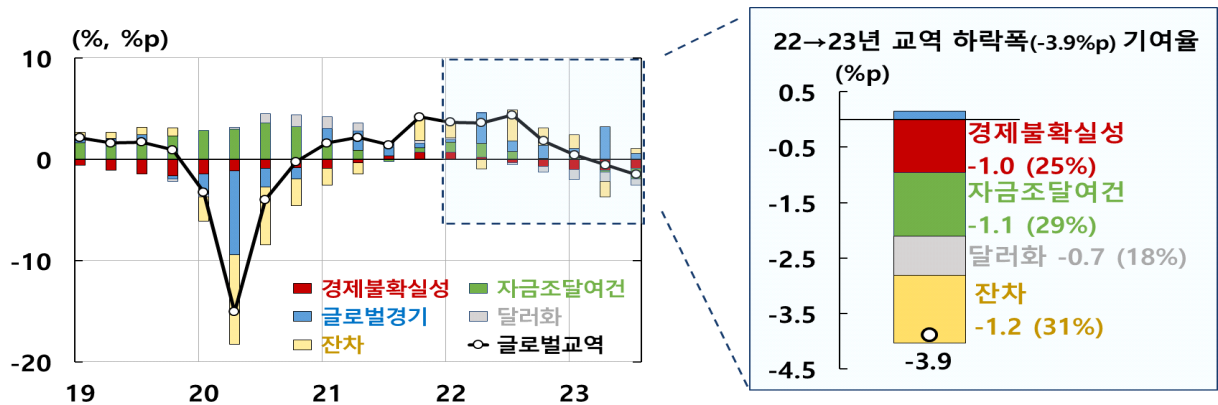
9) VAR 모형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세계교역 동인의 역사적 분해 방법 및 결과’를 참조

14 ■)는 팬데믹 이전부터 세계교역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2023년에는 교역 하락폭의 약 25%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자금조달여건 악화(그림 14 ■)는 직관과 부합하게 2022년 하반기부터 교역을 제약하기 시작하여 2023년중 교역부진의 약 29%를 차지한다. 통화긴축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반영하는 달러화 강세(그림 14 ■)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3년중 약 18%에 해당하는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잔차항(그림 14 ■)은 모형이 명시적으로 식별하지 못한 충격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간 선호충격, 공급망 차질 등 교역과 관련한 다양한 충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0)</sup>

**23년중 세계교역의 이례적 부진은 긴축적인 금융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그림 14> 세계교역 동인의 역사적 분해<sup>1)2)3)</sup>**



- 주: 1) 글로벌 금융여건은 주가 및 초과채권프리미엄(EBP), 글로벌 경기는 선진국 및 신흥국 산업생산으로 포착
- 2) 잔차는 재화·서비스 선호충격, 글로벌 공급차질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을 포괄
- 3) VAR추정에 활용된 글로벌 교역(상품기준)은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이므로 22년 대비 23년 교역 하락폭 3.9%p는 IMF기준 실제 수입증가율(상품기준) 하락폭인 4.6%p와 차이가 있음

자료: 조사국

10) 다만 모형의 잔차항과 미국 상품소비 비중의 순환변동치로 대리(proxy)된 상품선호간 상관계수는 2016년 이후 시기를 기준으로 약 0.48로 나타나 두 변수 간 높은 연관성을 시사한다.

**팬데믹 이후 공급망 차질은 22년까지 지속**

**잔차는 상품선호와 높은 상관관계**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자료: 뉴욕연준

**<잔차와 美 상품소비 비중><sup>1)</sup>**



주: 1) 순환변동치의 경우 0보다 크면 상품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가 높음을 의미

자료: BEA, 조사국

### Ⅲ. 2024년 세계교역 및 우리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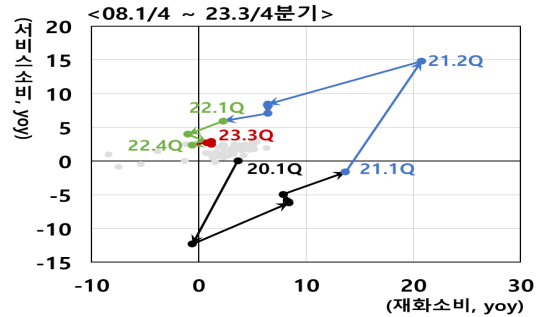
9. 지금까지 논의한 팬데믹 이후의 세 가지 특징 중 글로벌 통화긴축과 재화-서비스순환 충격의 영향은 금년 들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교역은 세계성장이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12월 美FOMC 이후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기대가 확대되는 등 금년 중에는 글로벌 통화긴축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주요국의 투자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AI산업 성장, 친환경 전환, 각국 산업정책 등 새로운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중심 수출국가의 경기 전망에 긍정적 요인이다.

한편 미국경제의 재화-서비스 소비순환 국면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무렵 정상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즉, 각국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 소비에 집중되었던 펜트업 효과는 거의 소멸되고 그간 억눌렸던 재화수요가 점차 되살아날 것을 시사한다.

다만 글로벌 분절화가 지속<sup>11)</sup>되는 상황에서 최근 중동정세 불안<sup>12)</sup>, 중국 경제지표 부진<sup>13)</sup>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올해 교역신장률(3.5%, IMF 전망기준)은 과거 장기평균(07~18년중 3.8%)에 비해 완만한 가운데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재화-서비스순환 정상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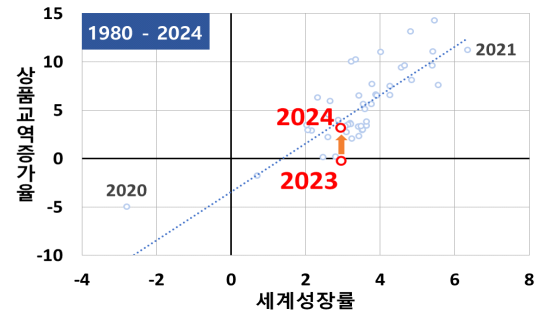
<그림 15> 미국 재화-서비스 소비 순환



자료: BEA

#### 24년중 상품교역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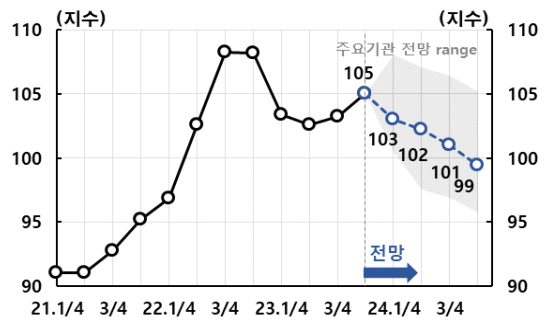
<그림 16> 세계성장과 상품교역



자료: IMF WEO(23.10월)

#### 달려화 완만한 하락 흐름 예상

<그림 17> 달려화 지수 전망<sup>1)2)</sup>



주: 1) 점선은 15개 기관 전망치 중간값

2) 음영은 전망 range

자료: Bloomberg

11) 미국은 첨단반도체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중국은 반도체 등에 쓰이는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조치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무역 갈등을 반영하여 미국의 상품수입 1위 국가는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2023.11월 기준).

12)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공격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는 세계교역(공급망)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한 선박 수송은 글로벌 컨테이너 물량의 20%, 해상교역 10%, 해상 가스·원유 수송의 8~10%를 차지하는데, 이미 12월중 홍해를 통해 운송되는 컨테이너수는 절반 이상 급감하였다(The Economist, Kiel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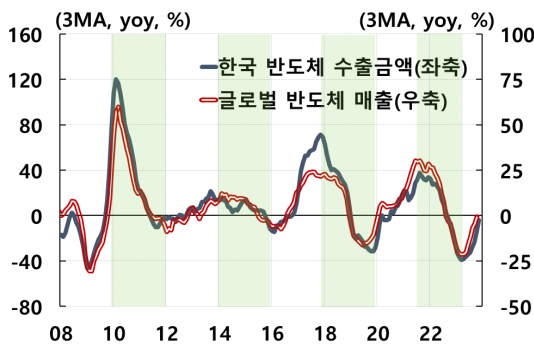
13) 2023.12월중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3%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최근 중국 경제는 생산과 수출이 개선되는 가운데서도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주도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0. 우리경제는 세계교역이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IT경기 반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PC·스마트폰 교체수요<sup>14)</sup> 및 AI 서버·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등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도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수출 개선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산업정책<sup>첨단산업·친환경투자</sup> 추진과 함께 그간 고금리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글로벌 투자가 회복되는 데에도 기인한다.<sup>15)</sup> 미국 등 선진국은 공급망 안정성과 첨단산업부문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정책(CHIPS, IRA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추세를 밀돌고 있는 글로벌 투자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sup>16)</sup>

### IT 경기사이클 확장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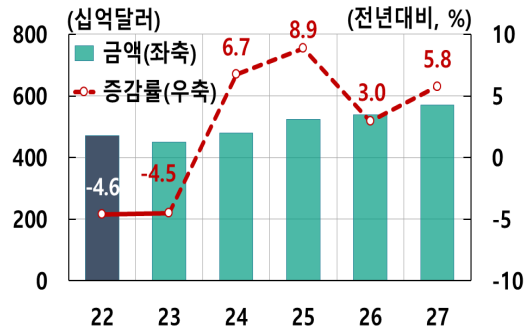
<그림 18> 반도체 경기<sup>1)</sup>



주: 1) 음영은 글로벌 테크 사이클 하강기  
자료: 관세청, WSTS

### 모바일 교체수요 반등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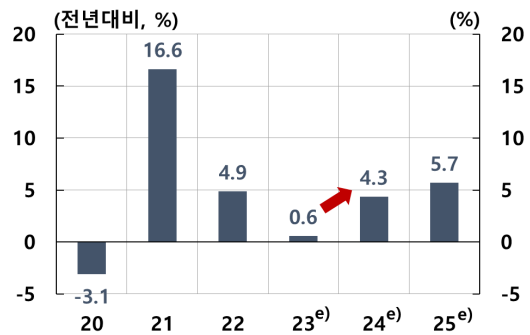
<그림 19> 모바일 기기 IT 수요<sup>1)</sup>



주: 1) 23년 이후는 전망치 기준  
자료: Gartner(23.12월)

### 24년중 글로벌 투자 개선 전망

<그림 20> 글로벌 투자 전망<sup>1)</sup>



주: 1) IMF 전망치를 활용하여 조사국 시산  
자료: IMF WEO(23.10월)

11.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sup>effective world import demand</sup> 증감률<sup>17)</sup>이 23년 -0.6%에서 24년중 3.3%로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금까지 논의한 금년중 글로벌 교역 및 우리수출의 개선전망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인 세계성장률, 세계교역증감률에 비해 우리와의 교역비중을 고려한 주요 수출대상국 수입수요증감률이 우리수출과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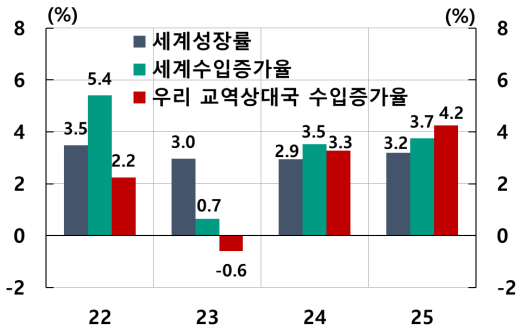
14) 통상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약 40개월 내외임을 고려할 때, 모바일기기에 대한 교체가 24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CounterPoint, 2023).  
15) Bloomberg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등 친환경 전환 수요는 금리상승 등 일시적인 역풍으로 인해 둔화될 수는 있을지라도 중단될 수 없는 추세로 이는 한국의 자동차, 기계류 등의 대미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16) 그러나 UN 등 일각에서는 여전히 높은 차입비용,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팬데믹 이후의 부진한 투자흐름이 금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UN 2024 경제전망, 24.1.5일)  
17)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10개 국가·권역(중국·미국·유로지역·베트남·일본·홍콩·대만·싱가포르·인도·호주; 2023년 총수출 비중 78.6%)의 수입증감률 전망치(IMF WEO, 23.10월)를 국가별 수출비중(23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였다.



높은 상관관계(0.84)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측력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sup>18)</sup> 따라서 작년 글로벌 통화긴축에도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했던 세계경제가 금년 들어 서비스 펜트 업효과가 소멸되고 고금리 영향도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소폭 둔화(23년 3.0% → 24년 2.9%, IMF 전망기준)되는 데 반해 세계 수입증가율(0.7% → 3.5%)과 주요 교역상대국 수입증가율(-0.6% → 3.3%)은 상당폭 회복되는 등 글로벌 성장과 교역흐름이 엇갈릴 전망이다.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 수입수요 개선이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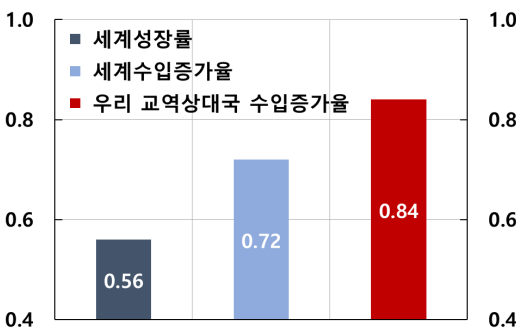
<그림 21> 글로벌 수입수요 증가율



자료: IMF WEO(23.10월), 조사국

**우리수출은 세계성장보다 주요 교역상대국 수입수요와 높은 상관관계**

<그림 22> 우리수출과 글로벌 수입수요간 상관관계<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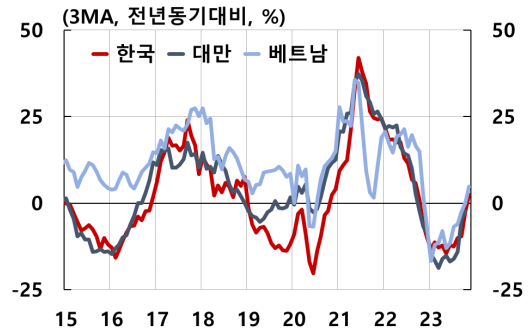


주: 1) 1997~2022년중  
자료: IMF WEO(23.10월), 조사국

**12. 금년중 수출 개선에 따른 성장세 확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만, 베트남과 같이 IT 중심의 수출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등 IT중심의 수출산업 비중이 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주요기관에 따르면 대만의 올해 성장률은 IT경기 및 글로벌 투자개선에 따른 수출회복 등에 힘입어 큰 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액이 GDP와 거의 같은 규모인 베트남의 경우도 지난해 3/4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실질수출이 4/4분기 들어 증가로 전환(YTD 증감률 기준)하였으며, 올해 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sup>19)</sup>

**우리나라와 대만, 베트남의 수출은 같은 사이클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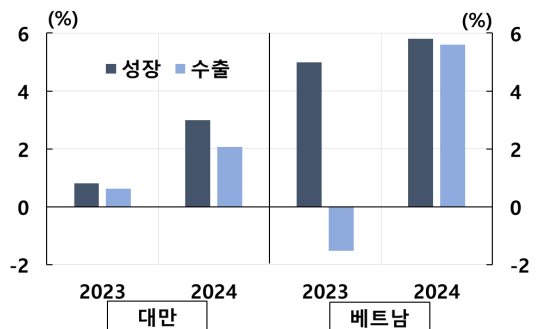
<그림 23> 우리나라, 대만, 베트남 수출<sup>1)</sup>



주: 1) 명목기준  
자료: WTO, 관세청

**IMF는 대만 및 베트남 경제성장률 확대 전망**

<그림 24> 대만 및 베트남 경제전망<sup>1)</sup>



주: 1) 베트남 23년 성장률은 실적, 수출은 물량기준  
자료: IMF WEO(23.10월)

18) <참고 3> ‘우리 수출 전망 시 예측력이 가장 높은 지표 식별 방법 및 결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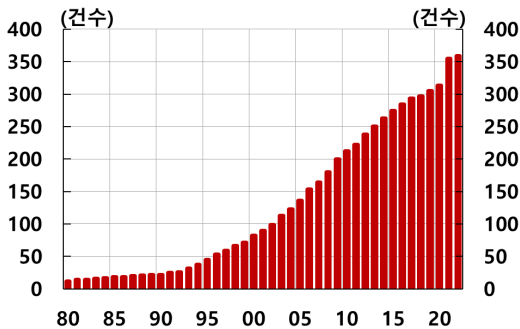
19) 2023.12월 피치사는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2025년까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IV. 중장기 세계교역 환경과 시사점

13. 향후 수년간의 중기 시계에서의 세계교역은 대체로 세계성장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하회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앞에서 언급하였던 ①AI산업 성장, 친환경 전환, 각국 산업정책 등 신규 투자수요가 자본재를 중심으로 교역회복력을 당분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②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건수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별로 공급망 안정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sup>20)</sup>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상품교역 둔화에도 ③서비스교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세계교역 둔화흐름을 완충하고 있다.<sup>21)</sup> 또한 ④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높은 조정비용으로 인해 현 글로벌 공급망이 쉽게 대체되기 어려워 국가간 교역의 중요성은 여전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sup>22)</sup>

#### 세계교역의 블록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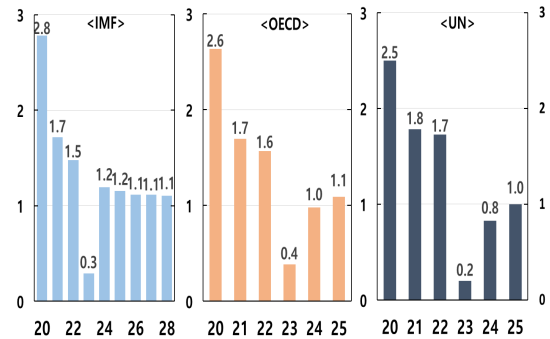
<그림 25> 지역무역협정 누적 건수



자료: WTO

#### 교역탄성치 1 내외 수준 회복 예상

<그림 26> 국제기구 교역탄성치 전망



자료: IMF, OECD, UN

14.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세 약화, 글로벌 분절화 지속 등이 세계교역에 구조적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국제분업구조의 중심에서 세계교역을 견인해 온 중국은 경제구조의 성숙화 등으로 예전과 같은 고속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중간재 수출 등을 매개로 한 세계교역 견인효과도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다. 나아가 최근의 글로벌 분절화 움직임이 심화될 경우에는 세계교역의 양적 확대가 크게 제약될 수 밖에 없다.<sup>23)</sup>

20) 윤용준 외(2023)는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교역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여타 국가를 경유한 간접수출이 늘어나는 등 최근 글로벌 교역구조는 단절이라기 보다는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미국을 최종귀착지로 한 對아세안 수출이 베트남(15년 7.0% → 21년 17.3%), 말레이시아(5.5% → 9.4%)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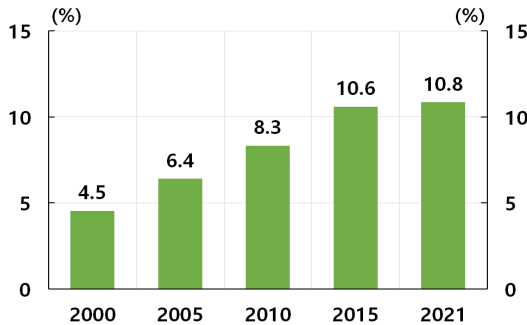
21) Baldwin et al. (2023)은 상품교역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교역이 이미 전세계 교역의 1/5에 도달하고 IT 지원 등 중간재 형태의 서비스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계화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22) World Bank(2023)에 따르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기업 클러스터가 특정 부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대규모 모듈형 생태계로, 이를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분리하는 경우 상당한 조정비용이 발생한다.

23) 지정학적 분절화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 다양한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다. Bolhuis et al. (2023)은 분절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공급망의 조정비용이 클 경우 글로벌GDP의 장기손실 규모가 7%에 달한다고 추정하였다. Goes and

## 중국의 생산거점 역할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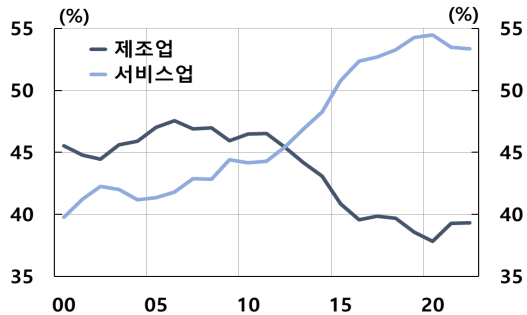
<그림 27> 중국 중간재 교역 비중<sup>1)</sup>



주: 1) 글로벌 중간재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자료: WITS

## 중국경제의 성숙화

<그림 28> 중국 산업별 생산 비중<sup>1)</sup>



주: 1) GDP대비 명목기준  
자료: HAVER

## 글로벌 분절화 진행

<그림 29>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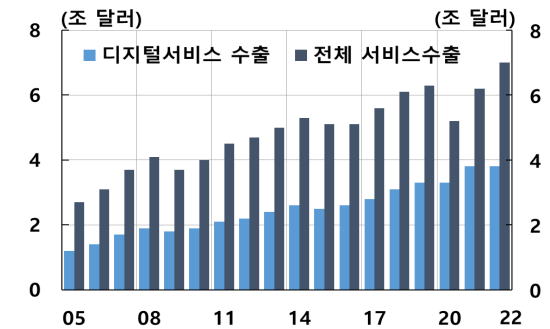
자료: HAVER

15. 아울러 기술혁신, 친환경 전환 등에 따른 투자가 일단락된 이후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글로벌 무역구조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앞으로 차세대 기술의 확산은 글로벌 생산성 향상 및 거래비용 절감과 함께 데이터·기술 관련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교역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생산공정의 자동화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임금 신흥국에 대한 생산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리쇼어링 등 공급망 재편<sup>24)</sup>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통상·산업정책과 연계되면서 세계교역 흐름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친환경 투자 확대는 세계교역에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주요국의 탄소무역장벽<sup>25)</sup>과 함께 철강, 석유화학, 운송장비<sup>26)</sup> 등 기존에 주종을 이루던 탄소 집약적 교역재의 수요감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향후 세계교역의 향방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다만 각국의 기후대응 기술 및 인프라 수준이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를 형성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 디지털 서비스 무역 확장세 지속

<그림 30> 세계 서비스 및 디지털서비스 수출액



자료: UNCTAD, WTO

Bekkers(2022)의 경우 국가간 지식확산에 초점을 맞춰 일부 국가에서 GDP 손실이 최대 12%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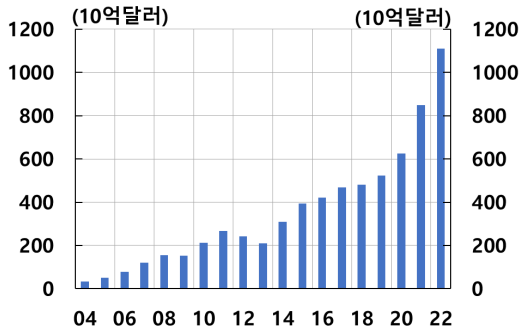
24) 공급망 재편은 상품교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령 자연어처리기술(NLP)의 발전은 인도, 필리핀, 동유럽 등지의 콜센터와 같은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Lund and Bughin, 2019).

25)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언하였으며 최근까지 탄소가격 부과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동차의 CO<sub>2</sub>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예: 노르웨이 2025년부터 판매 금지 등)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다.

## 글로벌 기후대응 투자 증가세 가속화

<그림 31>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



자료: BloombergN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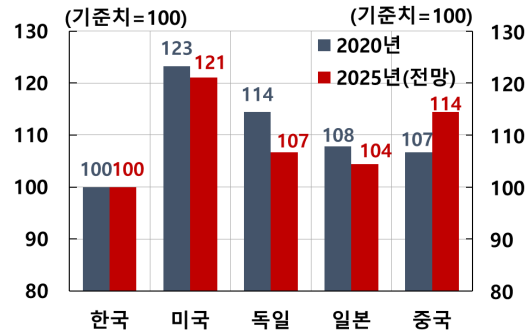
16. 이러한 세계교역의 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수출 환경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다. 이미 비IT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수출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AI 등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친환경 전환과정에서 주력 수출품에 대한 수요감소 가능성 등 하방 위험도 잠재해 있다.

17. 향후 우리경제 수출경쟁력 및 성장경로는 이러한 글로벌 분절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기술혁신과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흐름<sup>27)</sup>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선 중국의 생산거점 역할이 축소되는데 따른 반사이익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인도-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6년 EU CBAM의 전면 시행은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친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산업의 탄소집약도를 낮추고, 주요국 대비 저조한 기후대응 기술력을 향상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분절화와 친환경 전

환, 기술혁신의 방향은 서비스교역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과 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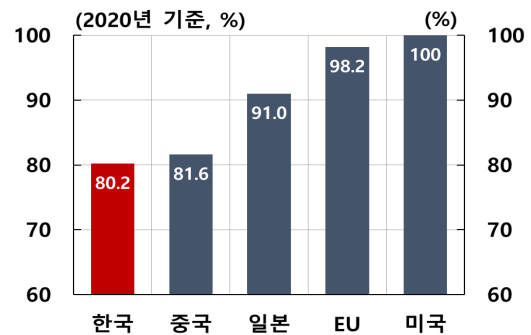
## 차세대 기술인력 및 에너지·자원기술 경쟁력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그림 32> 국가별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20년)

<그림 33> 주요국 에너지·자원분야 기술 수준<sup>1)</sup>



주: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논문·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최고기술 보유국 (100%) 대비 상대적 기술 수준을 측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Acemoglu et al. (2023)은 친환경 전환에 따른 단기적 비용은 피할 수 없으나, 탄소세 및 보조금 등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빠른 전환을 이루어 낼 경우 친환경 관련 기술적 우위를 크게 누릴 수 있어 최종적으로 전환 이전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 1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둔화의 구조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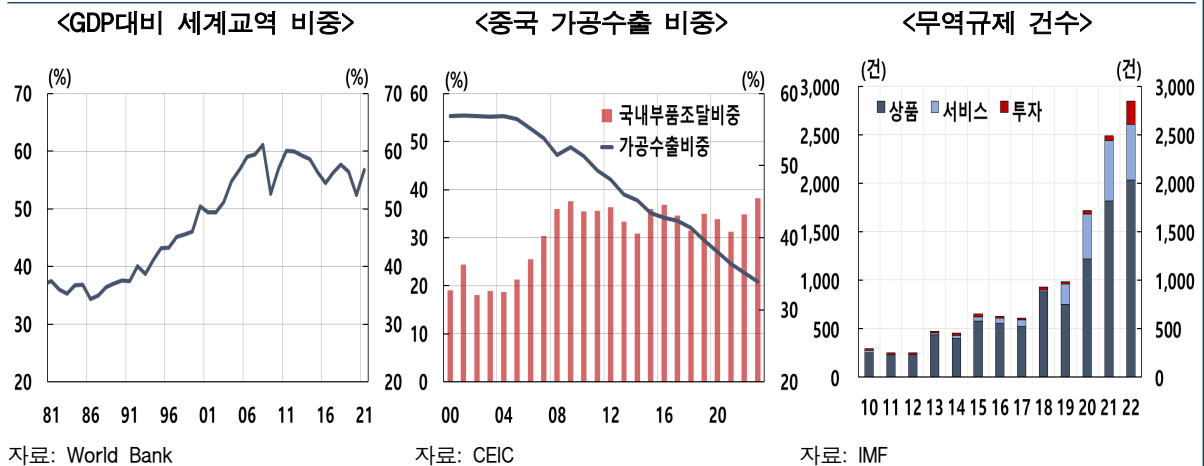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이 세계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그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① [투자 감소] 먼저 글로벌 성장동력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되면서 교역유발효과가 큰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세계교역이 둔화되었다는 견해가 있다(Boz et al 2014·2015, Morel 2015, Freund 2016). 특히, A Aslam et al. (2017)은 2003~07년 대비 2012~16년의 세계교역 감소중 80% 이상이 투자 감소로부터 기인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② [공급망 성숙화] 아울러 선진·신흥국간 소득 수렴속도 둔화(Escaith and Miroudot 2015)와 글로벌 공급망 성숙화(Constantinescu, Mattoo, Ruta 2015)가 세계교역을 제약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중국의 가공무역 감소 등 산업구조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된다(Kee and Tang 2014, Constantinescu et al 2020).

③ [보호무역주의]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세계교역의 증가세를 약화시켰다는 주장이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세계교역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주로 추진되었으나,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교역을 제약하고 있다(Evenett 2014, Evenett and Fritz 2016, Hufbauer and Jung 2016).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가 보여주듯, 높아진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높여 세계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010년대 이후 GDP대비 교역비중 점차 하락 중국 자급도 향상 및 가공무역 감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 참고 2 세계교역 동인(drivers)의 역사적 분해 방법 및 결과

최근 세계교역 변동의 주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Caldara et al. (2019)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7개의 변수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추정하였다. 각 변수별 충격에 따른 세계교역의 반응은 이론적 결과와 잘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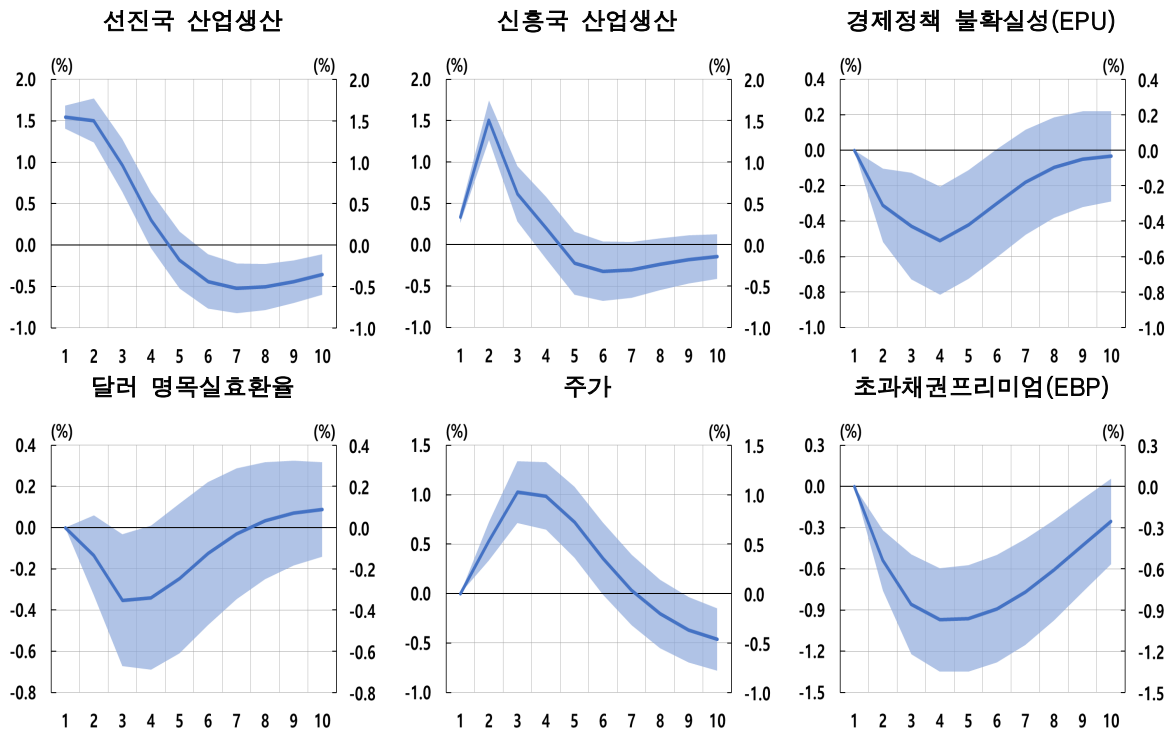
$$BX_t = A(L)X_{t-1} + \epsilon_t$$

$$X_t = [IP_t^{AE} \quad IP_t^{EM} \quad TRD_t \quad EPU_t \quad DOLLAR_t \quad STOCK_t \quad EBP_t]'^{28)}$$

여기서  $IP_t^{AE}$ ,  $IP_t^{EM}$ 은 각각 선진국과 신흥국의 산업생산(출처: CPB),  $TRD_t$ 는 세계상품교역(CPB),  $EPU_t$ 는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Baker, 2016),  $DOLLAR_t$ 는 달러 명목실효환율(BIS),  $STOCK_t$ 은 S&P500지수(Bloomberg),  $EBP_t$ 는 초과채권프리미엄(Excess Bond Premium, Gilchrist and Zakrajšek(2012))을 의미한다. 또한 시차(L)는 2분기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0년 1/4분기부터 2023년 3/4분기까지이다.

###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세계교역을 감소시킴

<각 변수별 충격에 따른 세계교역의 반응<sup>1)2)</sup>>



주: 1) 모든 변수는 로그변환하였으며 교역, 산업생산, 달러 명목실효환율, EBP는 HP필터를 통해 추세를 제거  
2) 음영은 68%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조사국

28)  $X_t$  변수 순서대로 콜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적용하여 VAR 모형의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였다.

### 참고 3 우리수출 전망시 예측력이 가장 높은 지표 식별 방법 및 결과

글로벌 수요를 나타내는 세계경제성장률, 세계수입증가율,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 수입증가율 중 우리수출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지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상기한 세가지 지표를 아래 회귀식의 설명변수 중 세계수요( $\Delta WD_t$ )에 각각 대입하여 모형의 설명력( $R^2$ )을 비교해 보았다.

$$\Delta EX_t = \alpha + \beta_1 \Delta WD_t + \beta_2 \Delta DXY_t + \beta_3 (\Delta WD_t * I_t) + e_t$$

여기서  $\Delta EX_t$ 는 국내 수출물량(통관기준, 출처: 한국은행 ECOS)을 의미하며,  $\Delta WD_t$ 는 세계수요로서 세계경제성장률(IMF WEO), 세계수입증가율(IMF WEO), 주요 교역상대국 수입증가율(IMF WEO로부터 조사국 계산)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Delta DXY_t$ 는 달러화지수(Bloomberg)를,  $I_t$ 는 위기 더미변수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위기 시 1의 값을 나타낸다. 한편, 주요 교역상대국 수입증가율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10개국(중국, 미국, 유로지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인도; 2023년 총 78.3%)의 수입증가율을 국가별 수출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분석기간은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1997년부터 2022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아래 추정결과는 직관과 부합한다. 모형 (1)과 (2)의  $R^2$ 를 비교해보면 세계경제성장률보다 세계수입증가율이 우리 수출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세계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확대되는 것이 세계교역의 회복에 기인한다는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모형 (2)와 (3)의  $R^2$ 로부터, 통상적인 세계수입증가율보다는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 수입증가율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수출을 전망하는 데 더욱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달러화지수의 계수값이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Akinci et al. (2022), Bruno and Shin (2023)이 주장한 것과 같이 달러화 강세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우리수출 전망시 주요 교역상대국 수입증가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

##### <우리수출에 대한 세계수요를 나타내는 적정지표 식별<sup>1)</sup>>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세계경제성장률	1.93**	-	-
세계수입증가율	-	1.16***	-
주요 교역상대국 수입증가율	-	-	1.09***
달러화지수	-0.29**	-0.27**	-0.08**
교차항	0.12**	-0.77**	-0.34**
상수	2.04**	2.73**	1.65**
<b>R - s q u a r e d</b>	<b>0.390**</b>	<b>0.642**</b>	<b>0.712**</b>

주: 1) \*\*\*p<0.01, \*\*p<0.05, \*p<0.1을 나타낸다.  
자료: 조사국

## 참고문헌

- Acemoglu, D., Aghion, P., BARRAGE, L., & Hemous, D. (2023). Green innovation and the transition toward a clean econom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s 23-14.
- Aiyar, S., Chen, J., Ebeke, C. H., Garcia-Saltos, R., Gudmundsson, T., Ilyina, A., Kangur, A., Kunaratskul, T., Rodriguez, S. L., Ruta, M., Schulze, T., Soderberg, G., Trevino, J. P. (2023).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Discussion Note.
- Akinci, O., Benigno, G., Pelin, S., Turek, J., (2022). The Dollar's Imperial Circl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 No. 1045.
- Baker, S. R., Bloom, N., Davis, S. J. (2016).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4), 1593-1636.
- Baldwin, R., Freeman, R., Theodorakopoulos, A. (2023). Deconstructing Deglobalization: The Future of Trade Is in Intermediate Services.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 Bolhuis, M. A., Chen, J., Kett. B. (2023). Fragmentation in Global Trade : Accounting for Commodities. IMF WP/23/73
- Bruno, V. and Shin, H. S. (2023), Dollar and Export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6. 2963-2996.
- Caldara, D., Iacoviello, M., Molligo, P., Prestipino, A., Raffo, A. (2019). Does Trade Policy Uncertainty Affect Global Economic Activity?, FEDS Notes.
- Davis, S. J. (2016). An index of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No. w2274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ollar, D. (2020). The future of global supply chains: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trade?. BROOKINGS Research.
- Fajgelbaum, P., Goldberg, P., Kennedy, P., Khandelwal, A., Taglioni, D. (2022). The US-China Trade War and Global Reallocatio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9894. World Bank Group.
- Gilchrist, S., & Zakrajšek, E. (2012). Credit spreads and business cycle fluctu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2(4), 1692-1720.
- Goes, C., Bekkers, E. (2022). The Impact of Geopolitical Conflicts on Trade, Growth, and Innovation. WTO Staff Working Paper ERSD-2022-09.
- Gopinath, G., Plagborg-Moller, M., Boz, E. (2018). Global trade and the dollar. CEPR, VOXEU COLUMN.
- Hoekman, B. (2015).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 A VoxEU.org eBook. CEPR.
- Lund, S. and Bughin, J. R. J. (2019). Next-generation technologies and the future of trade. VoxEU CEPR.
- Powell, Jerome H. (2016). The Global Trade Slowdown and Its Implications for Emerging Asia. Speech at CPBS 2016 Pacific Basin Research Conference.
- Rees, D. M. (2023). Commodity prices and the US Dollar. BIS Working Papers 1083.



BloombergNEF (2023). Energy Transition Investment Trends 2023.

Deutsche Bundesbank. (2023). Bundesbank's Forecast for Germany: Falling inflation, but not yet time to sound the all-clear.

Gartner (2023). Gartner Market Databook, 4Q23.

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2023 October.

J.P.Morgan. (2024). Vietnam: GDP growth maintained resilience in 4Q. Asia Pacific Economic Research.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2023). Taiwan's Economic Situation and Outlook.

OECD (2023).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3 Issue 2.

UNCTAD (2023). Global Trade Update, December 2023.

World Bank (2023). Protectionism is failing to achieve its goals and threatens the future of critical industries. World Bank Group Research Newsletter.

김동수. (2022). 한-베 수교 30주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KIET 산업경제분석

김선경, 이상원. (2023). 국제유가 등락의 외환시장 영향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김선진, 안희정, 이윤정. (2021).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제75권 제7호 16-45.

윤용준, 손민규, 남석모, 이승호, 최준, 유지원. (2023).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3-36호.

원지환, 이서현. (2020). 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제2020-3호.

이지은. (2023).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최근 논의. 한국은행 조사국.

장현숙, 황준석, 임지훈. (2023). 수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No 17.

정재완, 이재호. (2007). 급성장하고 있는 필리핀 콜센터 아웃소싱산업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15호.

한국은행. (2023). 경제전망보고서 2023.11.

한국경제연구원. (2020). 「주요국 4차산업혁명 인력경쟁력 현황 및 전망」조사. 보도자료

한영회계법인. (2021).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요 3개국(美·中·EU)을 중심으로.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2024-2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538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